

전남 미래 먹거리산업 탄력 받는다

내년 정부예산안 전략산업 분야 1천853억원 반영
의료기술·드론·항공·조선 등 성장동력 확보 기대

전남도의 미래를 책임질 전략산업 분야 사업이 2022년 정부예산안에 대거 반영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전남도는 1일 “2022년 정부예산안에 전략산업 분야 국비 1천853억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m-RNA 백신 실증지원 기반 구축’ 등 신규사업 14건을 포함해 미래 신성장산업과 주력산업 육성사업 63건이 포함됐다.

모더나, 화이자 등 글로벌 제약사의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반 기술인 m-RNA를 활용한 ‘m-RNA 백신 실증지원 기반 구축’ 14억원을 포함해 ‘진균류 바이오

단산업 R&D 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 자원 순환경계를 활성화할 ‘에너지저장 공적매출 재자원화 기술개발 및 실증’ 33억원 등이 신규 반영돼 온실가스 저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 교통수단인 드론·항공 분야에선 ‘미래형 플라잉카 핵심부품육성 기반 구축’ 20억원, ‘eVTOL 자율비행 핵심기술 및 비행안전성 운용성 시험평가’ 58억원 등을 통해 차세대 드론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한다. e-모빌리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초소형 e-모빌리티 부품 시생산 지원기반구축’ 53억원 등으로 e-모빌리티 지역특화를 위한 산업 기반 확충 및 양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남 주력산업인 조선 분야는 국제 환경 변화에 대응한 사업 다각화로 지역



광주전남연구원, 직장내 갑질 근절 선언

광주전남연구원 지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연구원으로 한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 직장내 갑질 근절을 선언했다.

광주전남연구원은 1일 갑질 근절과 예방을 위해 ‘갑질없는 직장 만들기’ 선언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사진> 이날 선언식은 박재영 원장을 비롯한 연구본부장, 실·국장단 등 보직자 중심으로 참여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직원들의 인격이나 외모 비하 폭언·폭행 등 무효



‘더 좋은 광주, 성평등을 향해’ 2021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가 1일 오후 광주시청 1층 시민홀에서 ‘더 좋은 광주, 성평등을 향해’란 주제로 열린 가운데 이용성 광주시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양성평등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김예리 기자

광주지역 김밥 식중독균 ‘안전’

시 보건환경연구원, 즉석 조리 판매업소 66곳 수거검사

최근 김밥 식중독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광주 분식집 등에서 판매되는 김밥을 대상으로 한 검사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1일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5개 자치구와 함께 즉석 조리·판매업소 66곳에서 수거한 김밥 71건을 검사한 결과 식중독원인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살모넬라, 장출혈성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등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경기 등 다른 지역에서 김밥 등 즉석 섭취 식품을 통한

한다. 달걀 깨기, 생고기 썰기 등 식재료 취급 후에는 반드시 세정제로 손을 씻고, 장갑을 착용하고 조리 중이었다면 장갑을 교체해야 한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업소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도 ▲생활 속 실천 가능한 손 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 ▲세척·소독하기 ▲조리기구 등의 구분 사용하기 ▲보관온도 지키기 등을 준수해야 한다.

서정미 식품미생물과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시기·사안별 오염 우려 식품 등에 대한 식중독원인균 모니터링을 강화해 식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승지 기자

불법광고물 꼼작마!

市, 17일까지 특별정비 나서

광주시는 추석에 맞아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도로교통을 방해하는 ‘불법 광고물’을 특별정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특별정비는 광주시와 자치구 10개 반 28명의 정비반을 구성해 6일부터 17일까지 버스터미널, 철도역 등 교통관문과 주요 간선도로, 전통시장 주변 등에 설치된 불법광고물을 대상으로 정비한다.

중점 정비대상은 ▲주요 관문과 간선도로, 역과 터미널 주변에 설치된 불법현수막 ▲가로변 시설물에 부착된 불법벽보 ▲유형 밀집지역의 퇴폐적인 불법전단지 ▲보도 등에 설치된 불법입간판 및 풍선광고 등이다. /오승지 기자

전남도,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23일까지 토지이동 6만7천필지

전남도는 1일 “올해 상반기 동안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이 일어난 6만7천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하고 오는 23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자세한 개별공시지가는 전남도와 시·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열람한 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토지 소재지 시·군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우편, 팩스, 방문 등

의 방법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는 토지 소재지 인근 토지와 표준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과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15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도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제 및 지방세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산정 기준과 총 60여종의 행정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김재정 기자

文정부 출신 최용선 전 靑 선임행정관 이재명 캠프 합류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최용선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 선임행정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캠프에 전격 합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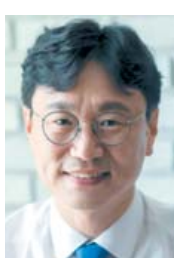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최용선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 선임행정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캠프에 전격 합류한다.

문 정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청와대 출신이 합류함에 따라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의 뒤를 잇는 이재명 캠프의 조직력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식 선거캠프인 ‘열린캠프’에 따르면 최 전 선임 행정관을 인재영입실 무지원단장으로 영입했다.

앞서 법조 출신인 강문대 전 청와대 비서관과 국민 생활 안전을 책임져 온 정재혁 전 국민생활안전담당관을 사회통합추진단장과 국민생활안전추진단장으로 각각 영입했었다.

신임 최 지원단장은 인사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을 살려 열린캠프에 영입되는



인재를 관리하고 검증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 출범과 함께 청와대에 입성, 안보와 인사 분야를 담당해 온 ‘안보 및 인사 분야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청와대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실 행정관 재직 당시 인사 및 조직 개편 등 국가안보실 체계를 구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열린캠프 관계자는 “다양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각 분야의 인재들이 잇따라 열린 캠프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며 “열린캠프라는 이름 그대로 능력 있는 인재들이 참여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행 기자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속도 5030 지켜주세요

2021년 4월 17일부터 전국 도심부 제한속도 하향

제한속도 시속 10km만 줄어도?

전체 사고 건수 13.3% 감소

사망자 수 63.6% 감소

통행 시간 2분 차이

※ 안전속도 5030 도입 전국 68개 구간 대상 시행 전후 교통사고 감소 효과 분석 결과(경찰청)

50 일반도로

30 이면도로

| 주치 | **광주매일신문** | 후원 |

광주광역시교통문화연구소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롯데쇼핑(주)